

《列仙傳》의 반동인물과 주인공의 세속 활동 모티프 고찰

權寧愛*

< 목 차 >

1. 서론
2. 본론
 - 2.1 반동인물 영역의 모티프
 - 2.1.1 不義모티프
 - 2.1.2 亂世모티프
 - 2.1.3 不信모티프
 - 2.1.4 無禮모티프
 - 2.1.5 養生怠慢모티프
 - 2.2 주인공의 세속 활동 영역의 모티프
 - 2.2.1 俗事超然모티프
 - 2.2.2 傳授모티프
 - 2.2.3 濟世모티프
 - 2.2.4 降妖모티프
 - 2.2.5 再來모티프
3. 결론

1. 서론

주지되어 있듯 모티프(Motif)는 문학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유사한 어구나 문장으로서, 특정 사건이나 메시지를 시사하는 장치이다. 작가에게

* 건양대학교 중국일본학부 부교수.

는 前代의 작품들에서 계승한 창작관습의 하나이며, 독자에게는 작품의 독해와 참여를 촉진하는 단서이다.¹⁾ 모티프는 사정에 따라 작품의 형성에서 비중이 다르지만 어떠한 모티프도 작품의 구조 파악에서 주목되어야 할 단위이며 작품의 정체성 파악에서도 한 요건이라고 하겠다. 새삼스럽지만 문학연구에서도 모티프 고찰은 일정한 효용이 있다. 모티프를 기준으로 역대의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계통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활용과 변주의 양상을 검토하여 작품들의 개성과 성취를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소설사에서 仙話, 즉 신선 작품은 기원 전 1세기에 劉向의 《列仙傳》의 출현으로 하여 다른 계통의 소설보다 먼저 정립되었으며 19세기 말 宣鼎의 《夜雨秋登錄》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이 이어졌다. 이러한 유장한 연속은 仙道가 중국에서 자생한 뿌리 깊은 인간 위주의 인간 초월 휴머니즘이면서 도교의 전개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선화 연구는 근대 이전의 다른 계통 소설 연구에서처럼 주로 역사주의와 사회문화비평의 시각에서 수행되어 왔는데 문학작품은 시대를 반영하면서도 문학 내부의 시스템을 따르는 자율성이 있기에 작품 자체의 구조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의 하나인 모티프를 탐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대 선화의 모티프 고찰에서 기준으로 삼아볼 가장 적절한 텍스트는 《列仙傳》이다. 주지되어 있듯 《列仙傳》은 유향이 戰國시대부터 발생한 仙道の 故事들을 소재로 하여 윤색하거나 창작하여 수록한 작품집이다.²⁾ 즉 《列仙傳》

1) M. H. 에이브람스는 모티프가 “문학작품 속에 자주 반복되는 요소, 즉 사건, 意匠, 또는 공식 등의 한 형태”이며, “같은 작품 속에서 중요한 문구나 장면묘사, 또는 복합이미지가 자주 반복되는 경우에도 역시 적용된다.”고 하였다. (M. H. Abrams 저, 권택영, 최동호 편역, 《A Glossary of Literary Term》, 새문사, 1993, 87쪽) 이상섭은 “반복되어 나타나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낱말, 문구, 내용”이며 “한 작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한 작가, 또는 한 시대, 또는 한 장르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작품의 주제를 구축하고 통일감을 주는 중요단위”라고 하였다.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84, 68-69쪽)

2) “일찍이 무제가 방사를 좋아하자 회남왕 유안도 빈객을 초치하고 청문한 이야기를 적은 《鴻寶》와 《密秘》를 베게 속에 간직하였다. ... 유향이 소년 시절에 이 책들을 읽고 기이하게 여겼다. ... 성제 때 유향은 나라의 전적을 관장하였는데 성제가 신선의 일을 배우려 하자 ... 상고 이래 진·한에 이르기까지 제가가 신선의 일을 다룬 기사를 널리 수집하여 그 인물을 대략 기재하여 이 전에 집성하였다. (初武帝好方士, 淮南王劉安亦招賓客, 有枕中鴻寶密秘之書, ... 向幼而讀之, 以爲奇. ... 至成帝時, 向既司典籍, 見上頗修神仙之事, ... 遂繕上古以來

에 수록된 작품들의 고사는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하였으나 후대 고사의 작가들은 전대의 고사를 참조하여 서사의 계기를 차용하거나 계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과정이 거듭되면서 고사들은 같은 계통으로서의 동질성을 확보하였을 것이며, 유향의 《열선전》에 이르러 고사의 동질성에 관련된 서사의 계기들이 일정한 모티프들로 정립되었다고 하겠다. 또 《열선전》이 연면히 연속된 후대 신선 작품들의 창작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후대 작가들은 《열선전》을 읽거나 《열선전》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읽고 자신의 창작에서 자산으로 삼았던 것이다.³⁾ 본고는 이러한 의의를 적극 고려하여, 《열선전》의 반동인물 영역의 모티프와 주인공의 세속 활동 영역의 모티프들을 모두 검출해 그 의의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고 그 의미를 고찰해 보려 한다.

이 작업은 한편 《열선전》을 소설론의 시각에서 보다 더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열선전》은 成仙이야기들이고 그렇게 파악되어야 하지만 반동인물 모티프와 주인공의 세속 활동 모티프를 주목할 경우, 성선이야기로 일괄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또 《열선전》의 작품들을 서구 근대소설의

及三代秦漢，博采諸家言神仙事者，約載其人，集斯傳焉”，（〈敘〉， 유향 지음/김장환 옮김, 《열선전》， 예문서원, 1996. 45~46쪽.) 한편, <黃帝>에서 유향은 《仙書》에서 직접 인용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仙書》에서 이르기를, ‘황제는 수산의 동을 캐서 형산 아래에서 술을 만들었다. 술이 완성되었을 때 용이 수염을 늘어뜨린 채 내려와 맞이하자 황제는 그것을 타고 승천했다. … 그래서 후세에 그 장소를 정호라 하고 그 활을 오호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했다.”(仙書云， 皇帝採首山之銅， 鑄鼎於荊山之下， 鼎成， 有龍垂胡鬚下迎， 帝乃昇天 … 故後世以其處爲鼎湖， 命其弓爲烏號焉)(<黃帝>， 같은 책, 62/63쪽). 앞으로도 《열선전》의 원문과 역문을 김장환본 《열선전》에서 인용한다. 앞쪽은 역문, 뒤쪽은 원문의 출전 쪽수이다. 이 책의 원문은 道藏本 《列仙傳》(1445)과 왕조원의 《列仙傳校正》(1804)을 대본으로 삼아 다시 정밀한 교감을 거쳐 정리한 신뢰할만한 텍스트이다. 굳이 원문을 찾아 인용하거나 대조할 필요가 없었다. 또 세밀한 주석 등 여러 배려를 거친 정확한 국역이라서 번역도 거의 그대로 따랐다.

3) 김장환도 《열선전》이 후대 작품에 끼친 영향을 주목하고 한대에서 명대에 이르기까지, 소설, 시가, 희곡, 집록으로 나누어 고찰하며 다음과 같이 총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듯 《열선전》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체계적이며 가장 전형적인 신선 설화집으로서, 위로는 신화를 계승하고 아래로는 후대의 신괴류 소설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그런 점에서 《열선전》은 중국 소설의 발전 역사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여, 시사곡 등 기타 문학에도 많은 제재와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문학의 창작 내용을 훨씬 더 풍부하게 해 주었다.” <《列仙傳》에 대하여>, 같은 책, 38쪽.

관점에서 소설로 간주하기를 저어하는 경향이 내재하는데, 두 영역의 모티프를 주목할 경우 역시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소설로서의 기본구조를 갖춘 작품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작품에서 갈등은 그 구조에서 가장 정제된 국면이며, 반동인물 모티프들은 그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축이다. 주인공의 세속 활동의 모티프 점검 역시 선화의 소설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새삼스럽지만 소설은 서정시와 달리 보다 구체적인 사회 환경을 배경으로 하며, 주인공의 사회상황과 활동이 소설에서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의도로 《열선전》에 수록된 70편에서 두 영역이 제기된 작품들을 선정하고 그 모티프들을 고찰한 작업이 아직 없지만, 유관한 선행 연구가 있다. 정재서는 신선설화를 득선설화와 선경설화로 나누고 전자의 서사구조를 ‘주인공의 배경’, ‘득선의 과정’, ‘능력의 발휘’, ‘최후의 귀속’, 네 가지 구성요소로 고찰하였는데, 이 구성요소들은 본고의 모티프와 개념이 유사하지만 이들은 서사구조의 관점에서 추출한 상위 모티프라고 할 수 있고, 본고에서 점검될 구체 모티프들과 성격이 다르다.⁵⁾ 정선경은 조셉 캠벨이 영웅신화의 서사구조에서 추출한 ‘출발’ ‘입문’ ‘회귀’의 단계 도식을 원용해 《열선전》에서 9편의 구성을 분석하여⁶⁾ 그 서사구조 파악에 기여하였는데, 이 역시 본고와 취지가

4) 이상에 관련된 매조리 불튼의 언급이 있다. 그는 소설의 정의를 검토하면서 먼저 다음과 같이 작중 인물의 관계와 일어나는 문제, 즉 갈등을 중시한다. “오늘날 아마도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진정한 소설은 무엇보다도 인물, 관계성 속에서의 인물들과 인물과 관계된 원인과 결과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매조리 불튼, 김영민 역, 《소설의 분석》, 동천사, 1984, 20쪽) 또 역시 소설의 정의에 관련시켜 소설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한다. “모든 소설은 비록 그것이 가장 가벼운 소설일지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주요 소설가는 빈번히 매우 적은 수의 인물과 그들의 경험과 인간관계 등에 흥미를 나타내곤 했지만, 모든 인간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책, 155-156쪽.

5) 이상,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2005, 142-147쪽 참조. 또 정재서가 이 고찰에서 다룬 텍스트에는 《神仙傳》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 본고는 《열선전》이 후대 작품들에 끼친 영향을 주목하여 《열선전》만 대상으로 하고, 서사구조를 관점으로 하여 그 이행을 주도하는 상위모티프를 고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동인물과 주인공의 세속 활동 영역에 국한하여 이 영역들의 서사에서 출현하는 구체적인 개별 모티프들을 점검하려 한다. 참고로, 반동인물 영역과 주인공의 세속 활동 영역은 위 네 요소 중 ‘득선의 과정’과 ‘능력의 발휘’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르지만 정재서의 연구와 더불어 본고의 작업에 유익한 시사를 주었다. 오광정은 역대 신선 작품들을 고찰하여, 서사모티프이자 작품유형으로 ‘下凡歷劫’ ‘悟道成仙’ ‘成仙考驗’ ‘濟世降妖’,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⁷⁾ 이 연구는 역대 신선 작품들을 거시 차원에서 개괄하고 분류하는데 기여하지만, 그 텍스트를 《神仙傳》과 그 후대 작품들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네 모티프 중 濟世降妖 모티프에 관련시켜 《열선전》의 <馬師皇> <子英> <昌容> <負局先生> <玄俗>, 5편을 거론하였다.⁸⁾ 이 네 모티프로는 《열선전》의 나머지 작품들을 개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 목적과 범위 때문에 《열선전》의 작품들에 나타난 반동인물과 주인공의 세속 활동 영역의 구체적인 모티프들이 자연 생략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본고는 우선 《열선전》의 작품들에 출현하는 두 영역의 모티프를 파악하려는 《열선전》 연구의 일환이며, 나아가 《神仙傳》에서부터 청대의 《聊齋志異》와 《夜雨秋燈錄》의 신선 작품들에 출현하는 반동인물과 주인공의 세속 활동 모티프를 고찰하는 작업에서 참조할 만한 기준을 제공하려고 하고,⁹⁾ 또 《열선전》의 작품들을 소설로서 평가하는 데 미력하나마 기여하

6) 정선경, <<열선전>에 대한 서사학적 연구 및 역주>,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6, 60-63쪽 참조. 다른 작품은 <琴高> <王子喬> <東方朔> <犢子> <山圖> <子英> <服闋> <朱璜> <邗子>이다.

7) “下凡歷劫, 悟道成仙, 成仙考驗과 濟世降妖는 도교 신화의 4대 서사모티프이며 도교 신화의 4대 핵심 고사유형이다.(下凡歷劫, 悟道成仙, 成仙考驗, 濟世降妖, 是道教仙話的四大敘事的四大敘事母題, 也是道教仙話的四大核心故事類型)”, (吳光正, <中國古代小說的原型與母題>,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13쪽) 오광정은 이 책의 103쪽에서 219쪽에 이르기까지 모티프마다 장을 설정하여 검토하였다. 참고로, 오광정의 연구를 검증하면서 보완을 제의한 줄고가 있다. 「<신선전>의 서사모티프 고찰 - 오광정의 연구에 대한 검토」, 《중국문화연구》 21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12, 12. 103-144쪽.

8) “<열선전>에서 방사 마사황과 자영은 용과 말을 치료해주고 나중에 각각 용과 말을 타고 승천하였다. 昌容, 負局, 玄俗은 혹 약을 판 돈을 고아나 독신자에게 주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백성을 위하여 병을 치료해주고 제세구민의 기치를 고양하였다.(在《列仙傳》中, 方士馬師皇, 子英爲龍, 馬治病最後分別乘龍馬升天而去; 昌容, 負局, 玄俗或賣藥得錢遺孤獨, 或不計報酬而爲百姓治病, 高揚濟世救民的大旗。)”(吳光正, 같은 책, 198쪽) 검증해본 결과 <昌容> <負局先生> <玄俗>은 濟世모티프와 관련되고 있었으나, <馬師皇>과 <子英>은 관련되지 않았다. 이 작품들의 주인공들이 용과 말을 치료하는 행위는 그들의 의술 재능의 시련이기에 재능모티프의 사례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9) 본고의 작업에서 추출된 두 영역 모티프와 《聊齋志異》 《夜雨秋燈錄》 등 후대 신선 작품

려 한다.

2. 본론

주지되어 있듯 《열선전》의 작품들은 모두 편폭이 짧다. 간략한 傳記로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창작한 短篇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간명한 서술 원칙에 기인하여 서로 성격이 다른 개별 이야기들이 연쇄되어 있으며, 개별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의 사건과 사연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체들로서 모티프로 볼 수 있다.¹⁰⁾ 전체 서사구조를 이루는 모티프들은 대략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주인공의 개인성 모티프들¹¹⁾과, 주인공의 사회성 모티프들이다. 반동인물과 주인공의 세속 활동 모티프들은 후자에 해당한다. 주인공들은 성선을 목표로 주로운거하며 수도하지만, 세속의 한 사람으로서 세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반동인물과 조우하여 갈등을 빚고, 또 자신의 지향에 따라 사회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다.

2.1 반동인물 영역의 모티프

모든 이야기의 전개에서 당연하지만 선화에도 주인공과 대립하는 반동인물

들에서 출현하는 모티프가 서로 어떻게 같고 다른지 그 지속과 변화의 양상도 점검하고 싶지만 이 작업은 본고의 목적 범주와 단편 논문의 분량을 넘어서기에 본고와 동학들의 후속 과제로 미루어 둔다.

10) 논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작품들에서 이러한 모티프들이 서사에서 상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성 미비로 보면서 서양 근대소설과 대조하여 중국 고대 소설의 특징이나 한계로 진단할 수 있다. 새삼스럽지만 서양에서도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소설이 발생하였으며, 서양 근대 소설의 형성 조건이었던 중산계층의 대두와 제지술과 인쇄술의 발전이 없던 상황을 감안하면, 양자를 같은 차원에서 대조할 수 없다고 본다.

11) 身元身上모티프, 才能모티프, 德行모티프, 養生모티프, 成仙모티프 등이다.

들이 등장한다. 나아가 반동인물이 누구이며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 사례들이 반복 등장하여 일정한 모티프들을 형성하고 있다. 반동인물은 주인공과 지향과 관점이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다른 상태에서 주인공과 조우하여 긴장 상황을 조성한다. 즉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주인공의 행위와 맞서는 행위를 수행하여 서사의 중심 공간과 시간을 결정하면서 갈등을 야기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갈등은 주인공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면서 주인공의 성격을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열선전》에 등장하는 반동인물들은 제왕, 亂世, 불신자, 무례한, 권귀 등이다. 반동인물과 조력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인공과의 관계의 추이를 살펴 그 종국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脩羊公>에서 漢 景帝는 처음에는 후원하는 조력자였으나 나중에는 수양공을 불신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하기에 결국 반동인물에 해당한다. 반동인물과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의의를 점검하기 위해 주인공의 대응도 같이 살펴본다. 반동인물이 등장하는 작품들에서 서로 정확이 다르지만 동일한 의의를 가진 사례들을 점검하여 모티프로 집약해본 결과, 不義모티프, 亂世모티프, 不信모티프, 無禮모티프, 養生怠慢모티프, 5가지였다.

2.1.1 不義모티프

반동인물의 불의는 주로 현실 권력의 욕망에서 기인하며, 야기된 불의는 주인공인 선도 종사자들의 지향을 훼손하는 상황을 조성한다. 선도 종사자들은 이 상황에 갈등하며 동조하지도 방관하지도 않는다. 《열선전》에서 선도 종사자들은 대체로 현실 권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이러한 알력 양상은 선도의 이상과 가치가 본질적으로 세속 초월이며, 또 초월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세속의 욕망을 비판하면서 그 극복을 실천하는 노선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지향에서 세속의 욕망을 가장 세련되게 정비하였으나 아무래도 명실이 어긋나기 쉽고 내부 통제도 어려운 현실 권력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단은 진나라 경 땅 사람이다. 문후 때 대부가 되었으며, 헌공 때에 이르러 다시 막부정이 되었다. i)헌공이 경을 정벌하고 공태자를 살해하자, ii)마단은 곧 떠났다. ...¹²⁾

i)이 불의모티프의 사례이다. 쥘 獻公이 반동인물이며, 그는 명분 없이 이웃 나라 耿를 침략하여 멸망시켰고, 애첩 여희가 낳은 혜제를 태자로 삼으려고 공태자(신생)에게 자살을 강요하여 결국 살해한다. 야욕과 치정에 기인한 불의이다. 두 사건이 이처럼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각각 나름대로 기승전결의 곡절을 가진 유명한 이야기들이기에 작가는 관련 이야기를 삽화로 동반시키는 서술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작가가 애초부터 관련 이야기를 함축하려 하였지, 길게 부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략한 제시는, 《열선전》의 <서>에서, ‘제가 신선의 일을 다룬 이야기를 널리 수집하여 그 인물을 대략 기재해 이 전에 집성하였다’라고 지적한 대로, ‘대략 기재’의 원칙에 따른 과감한 축약 현상이다. 전체 사연을 구성하면서 작은 사건은 개괄만 한 것이다. 또 이러한 서술 태도는 ii)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ii)에서 보듯, 주인공 마단은 진 헌공의 불의에 맞서 관직을 버리고 진 헌공의 조정을 떠나 은거한다. 역시 어떻게 떠나갔는지가 생략되어 있지만 마단이 선도 종사자로서 불의를 용납할 수 없고 더 이상 진 헌공의 신하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사연과 가치관이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간략한 제시는 진 헌공과 마단의 사행이 널리 알려진 에피소드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師門>에서도 불의모티프의 사례가 출현한다.

하나라 공갑의 용 사육사가 되었는데, i)공갑은 자신의 뜻대로 용을 부릴 수가 없자 사문을 죽여 교외 들녘에 묻었다. ii)어느 날 아침 비바람이 몰려와 그를 맞이해 갔는데¹³⁾

12) “馬丹者。晉耿之人也。當文侯時，爲大夫，至獻公時，復爲幕府正。獻公滅耿，殺恭太子，丹乃去...” <馬丹>, 유향 지음/김장환 옮김, 앞의 책, 107쪽/107쪽.

13) “爲夏孔甲龍師，孔甲不能順其意。殺而埋之外野。一旦風雨迎之...”, <師門>, 같은 책, 90/90쪽.

사문이 어떻게 용을 사육하였고 공감이 어떻게 용을 부리고자 하였는지가 역시 생략되어 있지만, i)에서 보듯, 여기서도 현실 권력과 선도의 도리 사이에서 모종 갈등이 야기되고, 공감은 사문을 살해한다. 현실 권력의 부조리한 욕망에 사문이 영합하지 않아 알력이 발생한 끝에 야기된 불의이다. 하지만 成仙모티프의 사례인 ii)에서 알 수 있듯 사문은 仙界의 후원으로 그 불의를 초월하며 성선한다. 즉 반동인물의 불의에 영합하지 않은 항거가 주인공이 자기완성을 달성하는 계기로 승화되어 있다. 불의모티프의 사례가 출현하는 작품으로 <鉤翼夫人> <寇先> <介子推> 등이 있다.¹⁴⁾

2.1.2 亂世모티프

주지되어 있듯 반동인물은 반드시 인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외부 상황 자체일 수도 있고 주인공의 내면에서 일어난 다른 가치나 욕망일 수도 있다.¹⁵⁾ 《열선전》에서는 전자가 출현하는데, 난세모티프가 그러하다.

노자는 ... i)나중에 주나라의 덕이 쇠하자, ii)푸른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떠나 대진국으로 들어가는 길에¹⁶⁾

14) 건명조로 부각된 부분이 불의모티프의 사례이다. “무제가 그녀를 총애하여 소제를 낳았다. 나중에 무제가 그녀를 살해했는데, 입관한 시체가 식지 않고 한 달 동안 향기가 났다. (遂幸而生昭帝。後武帝害之，殯尸不冷，而香一月間。)”(<鉤翼夫人>, 같은 책, 182/183쪽). “송나라 경왕이 그에게 도술을 물었으나 가르쳐 주지 않자 즉시 그를 죽였다. 수십 년 동안 송나라 성문에 걸터앉아 수십 일 동안 금을 타다가 곧 사라졌다. (宋景公問其道，不告，即殺之。數十年，踞宋城門，鼓琴數十日乃去。)”(<寇先>, 같은 책, 27/27쪽). “진나라 공자 중이가 그를 비범한 인물이라 여겨 함께 떠나 국외에서 10여 년을 지냈는데, 개자추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귀국했을 때 개산의 백자상이 새벽에 와서 개자추를 불러 “떠나는 게 좋겠소”라고 말하자, 개자추는 모친과 이별하고 산 속으로 들어가 백자상을 따라 노닐었다. (晉公子重耳異之，與出，居外十餘年，勞苦不辭。及還，介山伯子常晨來呼推曰：“可去矣。”推辭母入山中，從伯子常遊。)”(<介子推>, 같은 책, 104/105쪽) 개자추의 경우, 불의모티프는 백자상의 권유에 포함되어 있다. 즉 중이가 귀국하여 집권하고 논공행상을 할 때 개자추를 등용하지 않은 일이다.

15) 클리언스 브룩스 저, 안동립 역, 《소설의 분석》, 현암사, 1985. 237-238쪽 참조.

16) “老子 ... 後周德衰，乃乘青牛車去，入大秦，...”, <老子>, 유향 지음/ 김장환 옮김, 앞의 책, 73/75쪽.

i)이 난세 모티프의 사례이다. 주나라 말의 혼란한 세상이 반동인물 역할을 하고 있다. 역시 간단하게 출현하여 구체 정황이 결여되어 있지만, 각종 갈등 상황이 나름대로 설정된 국면이다. ii)에서 보듯, 노자는 이러한 세상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은거하려고 서역 대진국으로 간다. 은둔은 시대 방관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시대에서는 시시비비 구별이 어렵고 이런저런 이해관계와 갈등 상황에 휘말려 정체성과 도리를 훼손하기 쉽기 때문이다. 은둔은 명철보신에 기인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하겠다. 다음 <務光>에는 이 모티프가 적극 활용된 장면이 연출되어 있다.

i)은나라 탕왕이 하나라 걸왕을 토벌하려 할 때 무광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ii) 무광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 iii)탕왕이 이미 걸왕을 토벌한 뒤 천하를 무광에게 넘겨주면서, “... 仁者が 제위에 오르는 것이 옛날의 도입니다. 어찌 옛 도 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iv)무광은 사양하면서 “윗사람을 내치는 것은 의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이 아니며, 남이 그 고난을 무릅썼는데 내가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청렴이 아닙니다. 내가 듣건대 ‘의롭지 않으면 그 복을 받지 않고, 도의가 없는 세상에서는 그 지위에 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나를 왕으로 추존함에 있어서랴! 나는 이런 세상을 오래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돌을 씹어지고 스스로 요수에 빠졌다.¹⁷⁾

i)과 iii)이 관련된 상황이다. i)에서 탕왕은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걸왕을 토벌하려는 자신의 거사에 무광이 참여하기를 권유한다. 이 권유에는 자신의 거사는 정의이고 걸왕의 폭정은 불의라는 명분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명분은 iii)에서 보듯, 거사에 성공한 후, ‘仁者が 제위에 오르는 것이 옛날의 도입니다. 어찌 옛 도 대로 하지 않습니까?’라는 주장에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분을 무광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점을 훼손하는 도전으로 여긴다. ii)에서 보듯 무광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며 사양하는데 이 사양에는,

17) “殷湯將伐紂，因光而謀，光曰：“非吾事也。”...湯既克桀，以天下讓於光。曰：“...仁者居之，古之道也。吾子胡不遂之？...”光辭曰：“廢上非義也，殺人非仁也。人犯其難，我享其利，非廉也。吾聞：‘非義，不受其祿，無道之世，不踐其位’況於尊我！我不忍久見也。”遂負石自沈於蓼水。”，<務光>，같은 책，92/94쪽.

그 거사의 명분에 권력욕도 내포되어 있으며 결국은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려는 처사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으며, 이는 iv)에서 탕왕의 거사와 제안이 오히려, 의와 인과 청렴에 어긋난다는 공박에서 강화되고 있다. 무광은 결국 ‘이런 세상을 오래 볼 수 없습니다’면서 자신의 가치를 견지하고 요수에 몸을 감춰 결별한다. 이 결별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의 발로일 뿐만 아니라, 탕왕이 자신의 지난 명분에 무광에게 권력을 넘기겠다고 譏弄하듯 다시 제시하자, 모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반동인물의 뜻과 행위는 작중에서 갈등을 야기하며 주인공의 성격과 지향을 대조하여 부각한다. 난세모티프의 사례가 출현한 작품은 이외에도 <呂尙>과 <東方朔>이 있다.¹⁸⁾

2.1.3 不信모티프

나중에 도술로써 경제에게 벼슬을 구하자, 경제가 그를 예우하여 왕족의 저택에 머무르게 하였다. i) 몇 년이 지나도록 도술을 구할 수가 없자 조서를 내려 묻기를 “수양공은 언제 떠날 수 있는가?”라고 했다. ii) 사자들의 전언이 끝나기도 전에 수양공은 침상 위에서 흰 양으로 변했는데 그 옆구리에 “수양공이 천자께 하직을 고합니다.”라고 씌어져 있었다.¹⁹⁾

i) 이 불신모티프의 사례이다. 반동인물은 景帝이며, 경제는 급기야 선도를 불신한다. 경제는 수양공에게서 변신술을 배우려고 하였지만 세월이 지나도 배울 수가 없자 수양공을 불신하며 자발적인 퇴출을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야기되자 수양공은 ii)에서 보듯, 흰 양으로 변신하는 변신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선도를 입증하고 있는데, 경제가 도술 습득을 안이하게

18) “여상은 ... 주왕의 난세를 피하여 요동에서 40년 은거하다가 서쪽의 주나라로 가서 남산에 숨어 지냈다(呂尙者, ... 避紂之亂, 隱於遼東四十年, 西適周, 匿於南山.”(<呂尙>, 같은 책, 84/86쪽.) 즉 ‘주왕의 난세’가 반동인물이며, 여상은 요동 등으로 은둔한다. “선제 초년에 이르러 낭의 관직을 버리고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여 관사에 두건을 놓아 둔 채 바람을 타고 표연히 사라졌다(至宣帝初, 棄郎以避亂世, 置幘官舍, 風飄之而去).”(<東方朔>, 같은 책, 178/180쪽.) ‘선제 초년의 어지러운 세상’이 반동인물이며, 동방삭은 일탈한다.

19) “後以道干景帝, 帝禮之, 使止王邸中, 數歲, 道不可得. 有詔問: “脩羊公能何日發?” 語未訖, 牀上化爲白羊, 題其脅曰: “脩羊公謝天子.” <脩羊公>, 같은 책, 161/163쪽.

여기며 성의를 다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책할 줄 모르고 오히려 수양공을 불신하였다는 견책이 내포되어 있다. 다음 <騎龍鳴>에서도 불신모티프의 사례가 출현하여 서사에 기여하면서 주인공을 기리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룡명은 ... 어느 날 용을 타고 혼정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풍백 창외 손자이다. 이 곳 사람들은 500리 밖으로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믿은 자는 모두 떠났지만, i) 믿지 않은 자들은 요사하다고 생각했다. ii) 8월이 되자 과연 홍수가 일어나 죽은 자가 만 명이나 헤아렸다.²⁰⁾

i) 이 불신모티프의 사례이다. 반동인물은 기룡명과 그의 예언을 요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선도를 怪力亂神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 관점은 세속 보통 인물들의 일반적인 관점이었을 것이며, 특히 이성과 현세의 사실 질서를 존중하는 유학자들의 선도를 비판하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ii) 에서 보듯, 불신은 재앙을 초래한다. 불신한 사람들은 홍수에 죽는다. 이 결말에는 기룡명의 예언을 불신한 사람들이 우매한 피해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불신모티프의 사례는 <平常生>에서도 나타난다.²¹⁾

2.1.4 無禮모티프

i) 어떤 사람에게 납치되어 방 안에 갇힌 채 도술을 가르쳐 달라는 강요를 받았지만, ii) 방회는 변신술로 도망 칠 수 있었고 또한 방회라고 쓴 진흙 인장으로 그 문을 봉인했다.²²⁾

20) “騎龍鳴者一 ... 且騎龍來渾亭下，語云：“馮伯昌孫也，此間人不去五百里，必當死。”信者皆去，不信者以爲妖。至八月，果水至，死者萬計。” <騎龍鳴>， 같은 책， 188/189쪽.

21) “곡성향의 평상생은 어느 곳 사람인지 모른다. 여러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곤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 평상생은 다시 말하길, “홍수와 비는 5일 만에 틀림없이 그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과연 홍수가 멈추자(穀城鄉平常生者，不知何所人也。數死復生，時人以爲不然...復云：“水雨五日必止。”止)， <平常生>， 같은 책， 110/110~111쪽.

22) “爲人所劫，閉之室中，從求道。回化而得去，更以方回掩封其戶。” <方回>， 같은 책， 71/71쪽.

i)이 무례모티프의 사례이다. 시정의 好事者와 그들의 불량한 감금 행위가 제시되어 있다. 즉 반동인물은 선도의 이상보다도 도술에만 호기심을 가졌으며 性行이 저열한 무뢰한이다. 그래서 방회가 도술을 전수하려 하지 않자 방회를 감금하고 그 전수를 강요한다. ii)에서 보듯 방회는 이 인물을 도술인 변신술과 봉인술로 우롱한다. 그는 방회를 가둔 방에 갇혀 죽어도 바깥으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방회가 갇힌 것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었으며, 선도에 무례하면 이와 같은 반전이 일어난다는 경고가 시사되어 있다. 다음 <陰生>에서도 무례모티프 사례의 출현을 볼 수 있다.

음생은 ... 항상 시장에 머물면서 구걸하자. i)시장 사람들이 귀찮게 여겨 그에게 오물을 뿌렸다. ... ii)그에게 오물을 뿌렸던 사람의 집이 저절로 무너져 10여 명이 죽었다.²³⁾

음생은 시장에서 구걸하는 거지로 등장하는데, i)이 무례모티프의 사례이며, 사람들이 그를 혐오하여 오물을 뿌린다. 이 무례는 음생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ii)에서 보듯 구걸에 박정한 세태에 경고를 보내며 거지같은 천인에게도 무례하지 말고 자선을 베풀라는 교훈과, 신분과 계층을 넘어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서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무례모티프의 사례는 <馬丹>과 <務光>에서도 나타난다.²⁴⁾

23) “陰生者 ... 常止於市中乞，市人厭苦，以糞灑之。……灑者之家室自壞，殺十餘人”，<陰生>，같은 책，207/208쪽.

24) “조선자 때에 이르러 안거를 타고 진나라의 도읍으로 들어가 여러 대부들을 방문했다. 영공이 그에게 벼슬을 시키고 싶어서 무례한 방법으로 강요하자 ... 마단은 회오리바람 속으로 들어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至趙宣子時，乘安車入晉都，候諸大夫。靈公欲仕之，逼不以禮，…丹入迴風中而去).”(<馬丹>，같은 책，107/107쪽.) “이미 스스로 모습을 감춘지 400여 년 뒤 무정의 시대에 이르러 다시 나타났다. 무정이 무광을 재상으로 삼으려 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무정이 수레를 보내 맞이하자 따랐으나 무정이 예의에 맞지 않게 강요했다. 무광은 마침내 부랑산으로 들어갔으며, 그 후 상보산에서 노닐었다(已而自匿，後四百餘歲，至武丁時，復見。武丁欲以爲相，不從。武丁以輿迎而從，逼不以禮。遂投浮梁山，後遊尚父山).”(<務光>，같은 책，92-93/93쪽.)

2.1.5 養生怠慢모티프

주인공의 선도 전파는 주인공이 가진 정체성의 한 발현이며 양생은 선도의 전파에서 주요한 방안이다. 양생은 입문과 수련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속인들의 동기가 단순한 선망이거나, 추구 과정에서 고초를 감내하는 의지가 성실하지 못해 갈등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300여 년 동안 대대로 그를 보았다. i)황실의 척족 귀인과 부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상구자서가 가르쳐 준 약재를 가져다 복용했지만 일 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었으니, ii)자신들이 게으르고 싫증난 탓인데도 어쩌면 숨겨 둔 비술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²⁵⁾

i)에서 보듯, 반동인물은 ‘황실의 척족 귀인과 부호들’이며, 복약을 ‘일 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둔다. ii)에서 보듯, 그들은 복약을 번거롭게 여기며, 무슨 편리한 다른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ii)에 함축되어 있듯, 상구자서는 입지가 가볍고 선도 수행에도 성실하지 못한 이런 인물들에게 더 이상 배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도에 동참할 수 없고 그들의 향유는 세속에 국한된다. 이 작품에서 이 모티프의 반동인물이 상류계층 인물들로 제시되어 있어 주목되며, 이러한 양생태만모티프의 사례는 <僊僊>에서도 나타난다.

약전은 ... i)소나무 열매를 요 임금에게 보내 주었으나, 요 임금은 그것을 복용할 겨를이 없었다. 그 소나무란 간송이다. ii)당시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받아 복용한 자는 모두 2백 살에서 3백 살까지 살았다.²⁶⁾

i)에서 보듯, 요 임금은 정무에 바빠 간송을 복용하지 않았다. 양생태만을

25) “傳世見之，三百餘年，貴戚富室聞之，取而服之，不能終歲輒止，墮慢矣。謂將復有匿術也。”，<商丘自霄>，같은 책，220/221쪽.

26) “僊全者，…以松子遺堯，堯不暇服也。松者，簡松也。時人受服者，皆至二三百歲焉。”，<僊全>，같은 책，65/65쪽.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ii)에서 악전을 따라 간송을 복용한 사람들이 장수한 사실이 뒤따른다. 요 임금의 태만과 대조되며, 요 임금이 불로장수하지 못하여 유감스럽다는 뜻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양생태만모티프의 사례는 <嘯父>에서도 나타난다.²⁷⁾

이상으로 《열선전》 작품들의 반동인물 영역에서 출현한 모티프들을 살펴본 결과, 불의모티프, 난세모티프, 불신모티프, 무례모티프, 양생태만모티프를 검출할 수 있었다. 이 모티프들은 선도 종사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모두 대립하고 또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작중에서 갈등을 야기한다. 즉 선도 종사자들이 현실에서 겪는 알력이 무엇인지, 즉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불의모티프와 난세모티프는 선도 종사자들의 현실 참여와 정체성 유지를 위협하며, 불신모티프 무례모티프 양생태만모티프는 선도 종사자들의 선도 전파를 방해한다.

불의모티프는 시공을 초월하여 세속에서 빈발하는 비리에서 조성된 모티프이다. 세속 인간의 부조리한 욕망에서 야기되고 정의와 윤리를 왜곡하기에, 인간 존재의 승화를 지향하는 선도 종사자들에게는 극복하여야 할 기본 문제이다. 불의에 굴종하거나 불의를 방관한다면 정체성이 훼손되며 선도를 이룰 수 없다. 주인공의 대응에서 살펴본 대로 현실 권력이 불의를 자행할 경우 선도 종사자는 그 궤도에서 이탈한다. 이 이탈은 도피라기보다는 수행의 하나로, 또는 성선의 사례로까지 인정되고 있는데, 그만큼 불의가 선도의 구현과 전개에서 커다란 난관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불의모티프는 선도 종사자에게 불의에 굴종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금물이라는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복선 장치라고 하겠다.

난세모티프는 현실 권력이 부패한 가운데 세속 민중들이 혼란과 폭력의 와

27) “나중에 그가 늙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호사자들이 그에게 찾아가 비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으나 배울 수가 없었다.(後奇其不老, 好事者造求其術, 不能得也)”(<嘯父>, 같은 책, 88/88쪽) 소보로부터 장생술을 배우지 못 한 이유는 ‘호사자’라는 지칭에 함축되어 있다. 즉 그들의 진정성 없는 태만의 태도 때문이다.

중에서 위협 받는 권력 교체기를 경과하며 발생한 모티프이다. 난세는 선도 종사자들도 처신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의리와 시비가 착잡하게 섞여 있고 권력의 이기적 본질을 간파한 선도 종사자들은 명분이 있다고 해서 기존 권력을 붕괴하려는 새로운 권력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 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권력예의 욕구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선도 종사자들은 현실 권력과 가까울 수는 있으나 금도를 지키며 또 권력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불신모티프는 세속 사람들의 성의 없는 호사 취향과 유가의 관점에서 발생하였다고 하겠다. 자기 구원에 진정성 없이 도술에만 관심을 갖고 선도에 접근하거나 이성과 논리의 견지에서 선도를 비판하는 관점이 상존하였을 것이다. 선도 종사자들은 선도 구현에 장애가 되는 세속의 자세와 의혹을 의식하며 바로 그 대상인 도술 능력으로 입증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회는 그 대응에서 좋은 수단이었다.

무례모티프는 《열선전》 시대의 선도 종사자들이 하층 계층의 평민이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시정의 건달들이나 상위 계층 사람들이 선도를 반신반의하며 이들에게 무례하게 접근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당시에 선도의 사회적 위상이 낮았다는 것을 증빙한다고 하겠다. 작중 반전과 재앙에는 선도에 신분과 계층에 대한 문제의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생태만모티프 역시 선도 전파에서 장애의 하나였던 세속 사람들의 편의주의에 기인한 모티프이다. 수행 의지의 박약은 선도 수행을 중단하게 한다. 복약도 일정한 인내가 요구되지만 선도 수행에서 가장 간편한 방안인 데도 더 편리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상류 계층임이 다시 주목된다. 이 모티프 역시 작중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선도를 훼손하는데, 세속 보통 사람들의 모순된 내면을 성찰하게 하며 동시에 성실한 선도 수련의 태도를 부각한다.

2.2 주인공의 세속 활동 영역 모티프

주인공들의 삶의 목적은 成仙이다. 주인공들은 그 목적을 의식하면서 세속 사람들과 어울려 이런저런 활동을 한다. 그들은 세속을 초탈하고자 하나 세속의 인간이고 세속에서 선도를 닦아야하기에 그 과정에서 세속과의 관계와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면은 위 반동인물 영역의 모티프들과 함께 주인공들의 정체성과 활동을 다채롭게 연출하면서 작중 메시지를 성선을 기초로 하면서도 그 내포와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주인공의 세속 활동 영역에서 서로 정황이 다르지만 역시 동일한 의의를 가진 사례들을 점검하여 모티프로 집약해본 결과, 俗事超然모티프, 傳授모티프, 濟世모티프, 降妖모티프, 再來모티프, 5가지였다.

2.2.1 俗事超然모티프

이 모티프에서 주목되는 것은 선도 종사자들이 세속의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다. 장생불사를 기원하며 선도에 입문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범속한 삶에서의 일탈을 예고하고 있다. 속사초연모티프는 結婚回避모티프, 財慾克服모티프로 나뉜다.

2.2.1.1 結婚回避모티프

《열선전》의 작품들에서 아내와 자식과의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²⁸⁾ 이러한 양상을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속의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정은 삶에서 기초이며, 결혼은 그 조건이다. 선도 종사자들은 결

28) <園客> 한 편에서 아내가 등장하고 있지만 아내는 선계에서 원객의 누에치기를 돕기 위해 하강한 신선(선녀)이며, 원객의 입장이 밝혀지지 않고 부부관계라고 인정할 만한 삽화도 없다. 단지 그 신선이 “스스로가 원객의 아내라고 부르면서(自稱客妻)”(같은 책, 192/193쪽) 주변사람들에게 아내라고 자처할 뿐이다. 작중 정황으로 보아 이성보다는 양잠술을 전수하는 스승 역할에 더 가깝다.

혼을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양성 시장의 상인들 가운데 딸을 시집보내 그를 맞이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주객은 훌쩍 떠났다가 불쑥 돌아오곤 하였다.²⁹⁾

하간왕이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려 하자, 현숙은 밤에 도망 쳐 버렸다.³⁰⁾

상구자서는 ... 70세가 되도록 부인을 얻지 않았으며³¹⁾

주객, 현숙, 상구자서 모두 결혼을 하지 않는다. 하지 못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하지 않았다. 특히 현숙은 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으나 '도망'으로 적극 사양한다. 다음 <文賓>에서 유일하게 결혼한 사례가 출현하지만 이 또한 범상하지 않다.

몇 번 부인을 얻었으나 몇 십 년 지나면 문득 버리곤 했다.³²⁾

문빈은 결혼을 하기는 하지만 보통 남편처럼 부인에게 애정을 주거나 의지하거나 하지 않으며 이혼을 거듭한다. 그런데 문빈은 나중에 한 부인을 수용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부인이 선도에 종사하려는 뜻을 보였기 때문이다.³³⁾ 문빈은 옛 부인을 부인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새삼스럽지만 선도 종사자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이유는 결혼과 결혼생활이 자신들의 모든 俗事 탈피를 지극히 어렵게 하면서 수도에 막심한

29) “梁市中賈人，多以女妻而迎之。或來或去。”，<酒客>，같은 책，146/147쪽.

30) “王欲以女配之，俗夜亡去。”，<玄俗>，같은 책，254/255쪽.

31) “商丘子胥者，…年七十，不娶”，<商丘子胥>，같은 책，220/220쪽.

32) “數取嫗，數十年輒棄之。”，<文賓>，같은 책，217/218쪽.

33) “그 부인은 연로했지만 밤에 아들 손자를 따라 10여 리를 걸어가서 묘당 안에 앉아 기다렸다. 잠시 후 문빈이 도착하여 크게 놀라며 ‘당신이 도술을 좋아했던 말ियो? 당신이 이런 줄 알았다면 이전에 당신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오’라고 하였다.(嫗老，夜從兒孫，行十餘里，左社中侍之，須臾賓到，大驚，汝好道邪，知汝爾，前不去汝也)”(<文賓>，같은 책，217/218쪽) 여기서 아들과 손자가 등장하지만 원객과 사연이 없는 단순한 엑스트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피는 세속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선도의 기본 지향과 일치하는 행위이다.

2.2.1.2 財慾克服모티프

같은 이유로 선도 종사자들은 財慾을 통제한다. 재욕은 세속 삶의 욕망에서 가장 제어하기 어렵다.

축계옹은 ... 닭과 달걀을 팔아 천여 만 냥을 벌었지만 문득 돈을 내버려 두고 떠났다.³⁴⁾

노원공주가 또한 사적으로 700금을 주고 주중에게 진주를 구하자, 주중은 4촌 짜리 진주를 헌상하여 궐문에 보내 놓고는 즉시 떠나버렸다. ... 경제 때 다시 와서 3촌 짜리 진주 수십 개를 헌상하고 곧장 떠났는데 그 행방을 알 수 없었다.³⁵⁾

범려는 ... 백여 년 뒤 도 땅에 나타나 도주군이 되었으며, 억만 금의 재산을 모아 도주공이라 불렸다. 그 후 재산을 버리고 난릉으로 가서 약을 팔았다.³⁶⁾

안기선생은 ... 진시황이 동쪽을 순행했을 때 집건하기를 청하여 함께 3일 밤낮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수천만 금에 달하는 황금과 벽옥을 하사했으나, 부항정을 떠날 때 하사받은 보물을 모두 두고 갔다.³⁷⁾

축계옹, 주중, 범려, 안기선생 모두 결국 재욕을 극복해 재물에 매이지 않는다. 또 주목할 것은 이 활동에 앞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비범한 축재 능력과 축재 규모이다. 선도 종사자들에게 축재할 능력이 없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축재에 비범하게 유능하지만 재물을 소유하지는 않는 면모도 역시 이들의 탈

34) “祝雞翁者 … 賣鷄及子，得千餘萬，輒置錢去。”，〈祝雞翁〉，같은 책，155/155쪽.

35) “魯元公主復私以七白金，從仲求珠，仲獻四寸珠，送置於關，即去。…景帝時，復來獻三寸珠數十枚，輒去，不知所之云。”，〈朱仲〉，같은 책，158/160쪽.

36) “范蠡者 … 後百餘年，見於陶，爲陶朱君，財累億萬，號陶朱公，後棄，之蘭陵賣藥。”，〈范蠡〉，같은 책，121/121쪽.

37) “安期先生者 … 秦始皇東遊，請見，與語三日三夜，賜金璧度數千萬，出於阜鄉亭，皆置去。”，〈安期先生〉，같은 책，138/140쪽.

속 지향과 일치하며 이를 강조한다.

2.2.2 傳授모티프

선도 종사자는 자신의 기원을 달성하고자 성선을 지향하며 수련하면서도 세속의 타인들을 선도로 이끌며 자신의 성취를 전수한다. 특히 제자를 육성하는 전수 행위는 주인공의 자기인정이며 자기증식이다. 따라서 선선 작품의 서사에서 전수 행위는 주인공의 수련 과정 및 성선과 더불어 자연스러운 국면이라고 하겠다. 전수모티프는 전수 대상에 따라 經書傳授모티프, 服藥傳授모티프, 道術傳授모티프로 나뉜다.

2.2.2.1 經書傳授모티프

제자 육성과 선도 전파를 위한 주인공의 경서전수모티프의 사례는 다음 4편에서 나타난다. 주인공의 전수와 조력자의 전수는 둘 다 선행 종사자가 후행 종사자에게 선도를 전수하는 양상이지만, 전자는 주인공의 행위이며 후자는 조력자의 행위이기에 그 주체가 서로 다르며, 이하에서 검토되겠지만 관련 사정이 다르기도 하다.

《열선전》작품들에서 주인공들의 전수 사례가 나타나는 작품은 70편 중 9편으로 적은 편이다. 즉 조력자의 전수 사례가 많다. 주인공의 선도 수련과 성취를 본령으로 하는 선화에서 기존 수도자의 전수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또 주인공의 능력이 그대로 입증되면서 곧 성선 국면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같은 작품에서 주인공이 제자를 맞아 다시 전수한다면 한 작품에서 전수 사례가 중복되기도 한다. 주인공들의 전수 사례가 조력자보다 적지만 주인공의 전수에서 경서 전수가 조력자의 사례보다 훨씬 많아 주목된다.³⁸⁾ 면대면

38) 조력자의 경서 전수 사례는 <呂尙> 한 편에서만 나타난다. “여상은 ... 반계에서 고기를 낚았지만 3년 동안 고기를 잡지 못 하자 인근 사람들이 모두 “그만 하는 것이 좋겠소”라고 말했으나, ... 그 뒤 과연 고기 뱃속에서 병서를 얻었다. ... (呂尙者, ...釣於磻溪, 三年不得魚, 比閭皆曰: 可已矣.” ... 已而果得兵鈞於魚腹中.)”(같은 책, 84/86쪽) 참고로 여기서 조

도제방식과 달리, 경서는 필사나 간행으로 세상에 유포될 수 있기에 선도 전파에 보다 유능한 수단이다.

중니가 주나라에 이르러 노자를 만나보고는 그가 성인임을 알아 곧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 ... i)관령 윤희가 기다렸다가 그를 맞이한 뒤 진인임을 알고는 글을 써 달라고 억지로 부탁하자 《도덕경》 상하 2권을 지었다.³⁹⁾

3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나라에 나타나 《天人經》 48편을 지었다. ... 연자의 《琴心》 3편은 조리가 있다.⁴⁰⁾

무왕이 주왕을 토벌할 때 여상은 일찍이《陰謀》 100여 편을 지었다. ... 유해는 없고 《玉鈴》 6편만 관 속에 있었다.⁴¹⁾

나중에 노자와 함께 유사를 여행하고 서역인으로 귀화했다. ... 그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i)윤희도 스스로 9편의 글을 지었는데 그것을 《關令子》라고 한다.⁴²⁾

먼저 <老子>의 경우, 노자가 중니를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중니가 노자에게 접근하여 노자를 스승으로 모시는데, 이러한 사정은 윤희와의 관계에서 강화되어 나타난다. 노자의 《도덕경》 전수는 노자 자신의 필요나 발로가 아니라, 윤희가 ‘억지로’ 노자에게 저술과 전수를 적극 요청한 끝에서야 겨우 이루어지고 있다. 《도덕경》에 후광을 투사하려는 배려이기도 하지만, 윤희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지 않았다면 노자는 《도덕경》을 전수하지 않았을 것이란 뜻이 부각되어 있다. 즉 제자의 의지가 중요하며 그 의지가 전수의 동기가

력자는 반계의 고기가 아니라, 반계 수증의 선계에 있는 어떤 신선이다. 고기는 그 신선의使者이다.

39) “仲尼至周，見老子，知其聖人，乃師之。… 關令尹喜而迎之，知眞人也，乃強使著書，作《道德經》上下二卷。” <老子>, 같은 책, 73/75쪽.

40) “至三百年，乃見於齊，著《天人經》四十八篇。… 其《琴心》三篇，有條理焉。” <涓子>, 같은 책, 81/81쪽.

41) “至武王伐紂，嘗作《陰謀》百余篇。… 無尸，唯有《玉鈴》六篇在棺中云。” <呂尚>, 같은 책, 84/86쪽.

42) “後與老子俱遊流沙，化明。…莫知其所終。尹喜亦自著書九篇，號曰《關令子》。” <關令尹>, 같은 책, 77/79쪽.

다. 둘째, 경서 저술이 용이하지 않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는 <涓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자는 300여 세월의 긴 수련을 거쳐 세속 사람들에게 전수할 《천인경》과 《금심》을 저술할 수 있었다. 아무나 경서를 저술할 수 없다. 또 《도덕경》에서처럼 선도의 경서가 세상의 보통 경서와 다른 희귀한 秘書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셋째, 경서는 <呂尙>의 사례에서 보듯, 선도 종사자가 자신의 세속 생애를 마무리하는 최종 결산이다. '유해는 없고 《옥검》 6편만 관 속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성선모티프의 尸解仙 사례이면서 경서전수모티프의 사례이다. 이에 유해로서가 아니라 《옥검》으로써 자신의 세속에서의 모든 사행과 수련을 정리하겠다는 여상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취지는 <關令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희는 서역으로 은둔하였으며 그 중국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의 《關令子》는 세속에 전수되어 그의 화신으로 남는다.

2.2.2.2 服藥傳授모티프

문빈은 부인에게 국화 지부와 뽕나무에 기생하는 소나무 열매를 복용하여 정기를 증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⁴³⁾

문빈은 제자가 된 부인에게 복약 비방을 전수한다. 그런데 이 전수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부인이 선도에 간절하게 뜻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경서 전수처럼 이 전수 또한 주인공의 배려보다는 제자의 능동성이 우선이다.

2.2.2.3 道術傳授모티프

도술전수 모티프는 4편에서 나타난다. 역시 주인공의 도술 전수에서도 위 두 모티프에서처럼 제자의 배우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가 우선이다.

www.kci.go.kr

43) “敎令服菊花·地膚·桑上寄生松子, 取以益氣...”, <文賓>, 같은 책, 217/218쪽.

나중에 소보가 늙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호사자들이 그에게 찾아가 비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으나 배울 수가 없었다. i)오직 양모만이 그의 불 만드는 법을 터득했다.⁴⁴⁾

소보가 도술을 전수하기는 하지만 아무나 배울 수 없다. i)에서 보듯 양모는 경박한 호사자들과 달리 선도를 이해하고 추종하며 학업에 성의가 있어 作火術을 배울 수 있었다. 다음 <赤松子>에서도 적송자의 의지보다는 제자인 염제의 막내딸의 의지가 부각되어 있다.

염제의 막내딸이 그를 좇아 역시 신선이 되어 함께 떠나갔다.⁴⁵⁾

참고로, 적송자가 염제의 막내딸에게 전수한 도술은 自燒術과 飛行術이다.⁴⁶⁾ 다음 <仇生>과 <赤須子>에서 각각 ii)가 도술전수모티프의 사례이며, 역시 구생과 적수자의 의지보다는 구생의 불로술과 적수자의 예언술을 목격한 사람들이 접근하여 제자가 된다.

i)30년 뒤에 다시 건강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ii)모두 그가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스승으로 받들었다.⁴⁷⁾

i)풍 지방의 재해나 홍수 가뭄을 여러 번 예언했는데, 열 번에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다. ii)진목공의 신하가 그에게 귀의하고 그를 스승으로 맞이하여 도업을 전수받으면서 장점에 대해 물었다.⁴⁸⁾

44) “後奇其不老。好事者造求其術，不能得也。唯梁母得其作火法。”，<嘯父>，같은 책，88/88쪽.

45) “炎帝少女追之，亦得仙俱去。”，<赤松子>，같은 책，51/51쪽.

46) “적송자는 ... 불 속에 들어가 스스로를 태울 수 있었다. ... 바람과 비를 따라 산을 오르락 내리락하였다(赤松子者，...能入火自燒...隨風雨上下.)”，<赤松子>，같은 책，51/51쪽.

47) “三十餘年，而更壯，皆知其奇人也，咸共師奉之。”，<仇生>，같은 책，96/96쪽.

48) “數道丰界災害水旱，十不失一。臣下歸聞，迎而師之，從受業，問所長。”，<赤須子>，같은 책，175/175쪽.

2.2.3 濟世모티프

선도 종사자들은 선도를 수련하기 위해 세속과 거리를 유지하지만, 세속 사람들의 삶에 크게 관심을 가진다. 세속의 삶에는 늘 문제가 있다. 특히 세속 사람들은 부조리한 시대상황이나 천재지변에 불가항력이며, 질병에 취약하고 가난에 시달린다. 선도 종사자들은 이러한 고난을 방관하지 않고 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인간 존재의 한계와 관련 있으며, 선도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발생하였다는 기원을 고려하면 그 지향과 일치하고 또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하겠다. 제세는 따라서 선도 종사자들에게 자기구원의 확대에 해당한다. 제세모티프는 亂世安定모티프, 災害對處모티프, 疾病治療모티프, 利用厚生모티프로 나뉜다.

2.2.3.1 亂世安定모티프

문왕이 꿈속에서 성인을 만났는데 여상의 소문을 듣고는 마침내 그를 수레에 태워 함께 돌아왔다. 무왕이 주왕을 토벌할 때 여상은 일찍이 《陰謀》 100여 편을 지었다.⁴⁹⁾

범려는 ... 월나라의 대부가 되어 구천을 보좌하여 오나라를 격파했다.⁵⁰⁾

앞에서도 간접 검토되었듯이 <呂尙>에서 여상은 무광과 달리 난세에 은거만하지 않는다. 여상의 은거는 세속에 다시 나오려는 준비이기도 하였다.⁵¹⁾ 그는 천하를 안정시키려는 濟世의 의지로 주나라 문왕의 초빙에 응하고, 무왕

49) “文王夢得聖人，聞尙，遂載而歸。至武王伐紂，嘗作《陰謀》百余篇。” <呂尙>，같은 책，84/86쪽.

50) “范蠡 … 爲越大夫，佐句踐破吳。” <范蠡>，같은 책，121/121쪽.

51) “반계에서 고기를 낚았지만 3년 동안 고기를 잡지 못 하자, 인근의 사람들이 모두 ‘그만 하는 것이 좋겠소’라고 말했으나 ‘당신들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오’라고 하였다. 그 뒤 과연 고기 뱃속에서 병서를 얻었다(釣於磻溪，三年不得魚，比閭皆曰：‘可已矣。’尙曰：‘非爾所及也。’已而果得兵鈞於魚腹中。” <呂尙>，같은 책，84/86쪽.) ‘당신들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오’라는 여상의 말에 사정이 함축되어 있다.

의 은나라 주왕 토벌에 참여한다. 여상은 《陰謀》를 지어 전략을 총괄한 것이다. 두 왕은 여상을 참모로 활용한 것이지만, 여상의 입장에서는 때가 도래하자 문왕과 무왕의 힘을 빌려 난세를 종식시킨 것이다. <范蠡>의 경우, 상황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오나라가 공출과 할지, 군주의 볼모 등으로 월나라의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한 상황은 월나라의 입장에서 난세라고 할 수 있다.

2.2.3.2 災害對處모티프

역양에 팽조의 선실이 있는데, 옛날에 이곳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면 반드시 곧바로 영험이 있었으며⁵²⁾

<彭祖>에서 팽조는 세속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天災의 하나로 부름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비를 내려주기를 자신에게 기원하면 비를 내려준다. 이러한 모티프는 <赤松子>에서는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적송자는 신농 때의 雨師이다. ... 고신 때에 이르러 다시 우사가 되었다.⁵³⁾

적송자가 강우를 주도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직책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가 세속에 재래하여 다시 우사 직책을 맡은 데서도 그러하다. <平常生>에서 평상생은 홍수가 일어나 공포로 위축된 주민들에게 그칠 것을 예언하여 안정시킨다.

나중에 홍수가 나서 재해를 당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평상생은 결문산의 꼭대기에서 “평상생이 여기 있다” ... 다시 말하길, “홍수와 비는 5일 만에 틀림 없이 그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과연 홍수가 멈추자 주민들이 산으로 올라가 그에게 제사를 올리려고 찾았으나⁵⁴⁾

52) “歷陽有彭祖仙室，前世禱請風雨，莫不輒應.”，<彭祖>，같은 책，98/98쪽.

53) “赤松子者，神農時雨師也。... 至高辛時，復爲雨師.”，<赤松子>，같은 책，51/51쪽.

결문산은 평상생이 은거하며 수도하는 곳이다. 그는 떠나온 세속에서 홍수가 일어나자 방관하지 않는다. 게다가 평상생은 홍수 종식 예언만 한 것이 아닐 것이다. 주민들이 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한 데서 추정할 수 있듯, 그가 홍수를 종식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鹿皮公>에서 녹피공은 홍수로 수해가 발생하려 하자 가족을 자신이 은거 수도하는 峯山으로 대피시킨다.

그렇게 70년을 지냈을 때 치수가 불어나자 세 번 산을 내려가 친척과 가족 60명을 불러 산 중턱으로 올라오도록 하였다.⁵⁵⁾

녹피공 역시 성선을 위해 세속에서 벗어나 잠산에서 수도 중이었지만⁵⁶⁾ 홍수로 고난 받을 일족을 염려하며 좌시하지 않았다. 다음 <黃阮丘>에서 황완구 역시 睢山에서 수도 중이었지만⁵⁷⁾ 지진이 발생하려하면 이를 미리 알고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그 재난을 대비하게 한다.

지진으로 산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어지게 될 때에는 산 아래 사람들에게 미리 경계시켰다.⁵⁸⁾

2.2.3.3 疾病治療모티프

선도 종사자들의 세속 활동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로 약 행상이 있다. 이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다. 속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업으로서 濟世의 하나에 해당하며, 수도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약 채취와 판매는 물론 그들

54) “後大水出，所害非一，而平輒在缺門山頭，大呼言：“平常生在此！”復云：“水雨五日必止。”止則上山求祠之”，<平常生>，같은 책，110/110~111쪽.

55) “且七十年，溜水來，三下，呼宗族家室，得六十餘人，令上山半.”，<鹿皮公>，같은 책，195/196쪽.

56) “녹피공은 잠산 정상에 올라가 사당을 짓고 ... 지초를 먹고 신천의 물을 마셨다(上其巔，作祠舍...食芝草，飲神泉)”，<鹿皮公>，같은 책，195/196쪽.

57) “휴산 위에서 파와 부추를 심으며 100여년을 살았지만(於山上種葱薤，百餘年)”，<黃阮丘>，같은 책，240/240쪽.

58) “地動山崩道絕，預戒下人.”，<黃阮丘>，같은 책，240/241쪽.

이 명산에서 선약을 찾아 복약하는 수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적부는 ... 수십 년 뒤 화산으로 올라가 우여량을 채취해서 먹었으며, 창오와 상강 사이에서 그것을 팔았는데⁵⁹⁾

황완구는 ... 때때로 산을 내려와 약을 팔곤 했는데⁶⁰⁾

현속은 ... 성사에서 약을 팔면서 환약 7알에 1전을 받았는데 그 약은 온갖 병을 낫게 했다.⁶¹⁾

임광은 ... 단약을 복용하는 데 뛰어 났으며 도성과 시골에서 그것을 팔면서 89년을 지냈다.⁶²⁾

방회는 ... 운모를 가공하여 복용했으며, 또한 병이 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었다.⁶³⁾

부국선생은 ... 그래서 거울을 갈게 되면 문득 거울 주인에게 집안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곧 자주색 환약을 꺼내 주곤 했는데, 낫지 않음이 없었다.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뒤 역병이 크게 돌았는데, 집집마다 찾아가 약을 주어 살아난 사람이 만 명을 헤아렸지만 일 전도 받지 않았다.⁶⁴⁾

다시 말해, 명산에서 은거하며 수련하는 그들이 굳이 세속 시정에 내려와 속인들의 치병을 위하여 약을 판매하는 것은 수련의 확대이면서 제세의 일환임이 분명하다. 다음 <崔文子>에서 이 모티프는 구체 정황을 동반하며 서사의 중심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59) “赤斧者 ... 後數十年，上華山，取禹餘糧餌，賣之於蒼梧·湘江間”，<赤斧>，같은 책，228/228쪽.
 60) “黃阮丘者 ... 時下賣藥，” 같은 책，<黃阮丘>，240/240쪽.
 61) “玄俗者 ... 賣藥都市，七丸一錢，治百病．”，<玄俗>，같은 책，254/255쪽.
 62) “任光者 ... 善餌丹，賣於都市里間，積八十九年．”，<任光>，같은 책，149/149쪽.
 63) “方回者 ... 煉食雲母，亦與民人有病者．”，<方回>，같은 책，71/71쪽.
 64) “負局先生者 ... 因磨之，輒問主人得無有疾苦者，輒出紫丸藥以與之，得者莫不愈．如此數十年，後大疫病，家至戶到與藥，活者萬計，不取一錢．”，<負局先生>，같은 책，233/235쪽.

나중에 역병이 돌아 죽은 사람이 만 명을 헤아렸다. 현의 관리가 문자의 처소로 가서 병든 사람들을 구해 달라고 청하자, 문자는 붉은 깃발을 들고 노란 가루약을 차고서 병든 사람들의 집을 돌아다녔는데, 가루약을 먹은 자는 그 자리에서 나오며 살아난 자가 만 명을 헤아렸다. 그 후 떠나 축 땅에서 노란 가루약을 팔았다. 그래서 세간에는 최문자의 붉은 환약과 노란 가루약을 보배로 여겼는데, 확실히 신묘함에 가까운 효험이 있었다.⁶⁵⁾

최문자의 질병 치료는 규모가 크며, ‘붉은 깃발’과 ‘노란 가루약’이란 묘사는 그 활동과 약효를 더욱 고양시키고 있다. 또 다른 곳으로도 가서 널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모는 그의 질병 치료가 의지와 목적의 행위라는 사실을 잘 시사한다. 또 질병이 세속 인간이 제어하기 어려운 한 한계이며 선도에 따른 복약이야말로 그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秘方이라는 사실을 적극 환기시킨다.

2.2.3.4 利用厚生모티프

주인공들의 세속 활동에는 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활동도 있어 주목된다. 이용후생은 위 세 모티프와 더불어 세속 속인들의 안정에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도의 고답적인 도리와 이상에서 간과될 수도 있었다.

원객이 그 나방을 잡아 베를 깔아주었더니 그곳에 뽕누에를 낳았다. ... 어떤 아리따운 여자가 밤에 찾아와 스스로를 원객의 아내라고 하면서 누에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였다. 원객은 그녀와 함께 누에를 길러 120개의 고치를 얻었는데 모두 향아리만큼이나 컸으며, 고치를 하나 켜는 데 60일이 걸려서야 비로소 끝을 내었다. ... 제음 사람들은 대대로 뽕누에에게 제사 드리고 사당을 세웠다.⁶⁶⁾

65) “後有疫氣，民死者萬計。長吏之文所請救，文擁朱幡，繫黃散，以徇人門，飲散者即愈，所活者萬計。後去，在蜀賣黃散，故世寶崔文赤黃散，實近於神焉。”，〈崔文子〉，같은 책，169/170 쪽.

66) 客收而薦之以布，生桑蠶焉。...有好女夜至，自稱客妻，道蠶狀，客與俱收蠶，得百二十頭滿，皆如養大，繅一繭，六十日始盡。...故濟陽人世祠桑蠶，設祠堂焉。”，〈園客〉，같은 책，192/193 쪽.

<園客>에서 원객은 신선의 조력으로 비범한 양잠술을 성취하고 서민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양잠술을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하기 위해 전수한다는 국면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제음 사람들은 대대로 뽕누에에게 제사 드리고 사당을 세웠다’에서 그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 <昌容>에서 보다 뜻 깊게 출현한다.

자초를 찾아서 캐는 데 뛰어 났는데, 그것을 염색을 업으로 하는 집에 팔아 돈을 벌어 고아와 과부에게 주었다.⁶⁷⁾

창용은 염료이면서도 약초인 자초를 팔아 고아와 과부들의 후생을 시도한다. 주인공이 민생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행위는 선도가 단순한 자기승화 이상이며, 위민의식의 민중지향의 이상을 지녔다는 것을 입증한다.

2.2.4 降妖모티프

인간은 세속의 삶에서 천재지변에 대처하거나 질병이나 가난을 극복하기 어렵지만, 요괴와 귀신같은 초인간적인 존재에게서는 더욱 한계를 느낀다. 이러한 존재가 삶에 개입하여 혼란을 야기하거나 위해를 가할 경우 선도에 의지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질 것이고 선도도 응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열선전》의 작품들에는 요괴와 귀신이 반동인물로 등장하여 주인공과 대결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 그러한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는 초기 국면이 나타나 주목된다. 오광정은 濟世와 降妖를 한꺼번에 다루며 《열선전》에서 이 모티프가 출현하는 작품으로 <馬師皇> <子英> <昌容> <負局先生> <玄俗>을 예거하였는데 앞에서 검토한 대로 <창용>과 <부국선생>은 제세모티프가 나타났지만 <마사황>과 <자영>에는 제세나 향요모티프가 없었다. <현속>의 향요모티프 사례는 다음과 같다.

67) “能致紫草，賣與染家，得錢以遺孤寡.”，<昌容>，같은 책，198/198쪽.

하간왕이 괴백병을 앓다가 그 약을 사서 복용한 뒤 뱀 10마리를 배설했다. 하간왕이 약의 효능에 대해 묻자, 현속이 말하기를, “왕의 괴백병은 6대째 쌓인 재앙으로68)

하간왕의 괴백병은 보통 질병이 아니다. 병근이 ‘6대째 쌓인 재앙’에서 유래한 ‘뱀 10마리’라고 하는 데서 보듯, 이 질병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며, 여기서 ‘뱀 10마리’는 요괴나 귀신의 일종이자 그 비유로 간주되어 있다. 즉 어떤 악업을 저지르면 뱀과 같은 요괴나 귀신이 초래되며, 이러한 존재가 괴백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괴백병 같은 질병은 세간의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고, 현속과 같은 도사가 만든 특별한 仙藥이라야만이 퇴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속의 행위는 질병 치료이기도 하지만 향요의 성격이 더 부각되어 있어 향요의 사례로 보아야 하겠다. 다음 <黃帝>에서 나타난 향요의 사례는 보다 넓게 개진되어 있다.

황제는 ... 온갖 신을 탄핵하고 베알토록 하여 부릴 수 있었다.69)

역시 구체 정황이 생략되어 있지만 귀신들을 제압하여 처벌하고 복종하게 하는 황제와 권능이 단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선도의 인물은 의지대로 귀신을 다룰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이 사례는 <현속>의 사례와 더불어 후대 신선 작품에 출현하는 향요모티프의 기원이라고 하겠다. 《열선전》에서 출현하는 향요 사례는 이 두 사례뿐이다.

2.2.5 再來모티프

수도자는 성선에 성공하면 선계로 떠나가는데, 이 국면에는 이후에 신선으로서 선계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으며, 대체로 작품의 결말이기

68) “河間王病癩，買要服之，下蛇十餘頭，問藥意，俗云：“王癩乃六世餘殃。”，<玄俗>，같은 책，254/255쪽.

69) “黃帝者…能劾百神，朝而使之.”，<黃帝>，같은 책，62/63쪽.

도 하다. 그런데 어떤 작품들에는 그런 주인공들이 세속에 再來하여 활동하는 사례가 출현한다.⁷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체하며 세속을 초월하고자 한 기원을 성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속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그 자체 주목되며, 그 이유가 무엇들인지 검토해 이 모티프의 의의를 규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확인해본 결과, 재래모티프는 仙道傳播모티프, 疾病治療모티프, 家族愛모티프, 謫仙모티프, 人神相愛모티프로 나뉜다. 이중 疾病治療모티프는 위에서 점검된 대로 濟世모티프의 하나로 출현하였기에 여기서 다시 다루는 것은 중복일 수 있으나, 전자는 성선 이전에 출현하고 후자는 성선 이후에 출현하여 출현의 조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 신선이 재래하는 이유들이 무엇 때문인지 모두 다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2.5.1 仙道傳播모티프

다음 <谷春>에서 곡춘은 成仙하였다가 세속에 다시 나타난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i) 3년 뒤 다시 관건을 쓰고 역양현의 성문 위에 걸터앉아 있자 현민들이 크게 놀랐다. ii) 집안사람들이 그를 맞이했으나 따라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iii) 관을 열어보았더니 옷만 있고 시체는 없었다. iv) 곡춘은 3일 밤을 성문 위에서 머문 뒤 장안으로 가서 황문 위에 머물렀는데, v)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맞이하려고 따라오자 다시 떠나 태백산으로 갔다. 산 위에 사당을 세웠는데, 곡춘은 때때로 그 사당에 내려와 머물며 자고 가곤 했다.⁷¹⁾

iii)은 成仙모티프의 尸解仙 사례이다. 따라서 i)은 재래모티프의 사례이며, ii) iv) v)는 그 삼화이다. ii)에서 곡춘은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70) 주인공이 은거하다가 다시 세속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도사로서의 수련 과정의 연속이기에 제외한다.

71) “三年，更著冠幘，坐縣門上，邑中人大驚。家人迎之，不肯隨歸。發棺，有衣無屍。留門上三宿，去之長安，止橫門上。人知追迎之，復去之太白山。立祠於山上，時來至其祠中止宿焉。”，<谷春>，같은 책，205/206쪽.

계속 역양현 성문에 걸터앉아 있는데, 현민들에게 자신이 성선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일 것이다. 성문은 그 적합한 장소이다.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은 이유는 iv)에서 보다 구체화 된다. 그는 장안으로 가서 장안성의 횡문에서 머무른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선을 알리려하기 때문이다. 도성의 성문은 도성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오고 가기에 소문이 전국에 유포될 수 있다. 곡춘의 최종 목적을 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곡춘은 자신의 성선을 인지하고 추종하려는 사람들을 유도해 태백산으로 가며, 그의 마지막 의도대로 사람들은 그 산에 사당을 세워 그를 기린다. 즉 곡춘이 세속에 재래한 이유는 자신의 성선을 입증하고 선도를 전파하려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 <寇先>에서 구선의 재래 의도도 이와 유사하다.

송나라 경왕이 그에게 도술을 물었으나 가르쳐 주지 않자 즉시 그를 죽였다. i) 수십 년 뒤에 송나라 성문에 걸터앉아 수십 일 동안 금을 타다가 곧 사라졌다.⁷²⁾

i)에서 구선이 수십 년 뒤에 재래한 이유도 밝혀진다. 경왕에게 피살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성선했다는 것이며, 금을 연주하는 이유는 경왕의 불의와 대조하여 선도의 고아한 아취와 풍격을 부각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또 성문에서 그러한 것에는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선을 알리며 동시에 선도를 전파하려고 하는 목적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겠다.

2.2.5.2 疾病治療모티프

재래에서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질병치료모티프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질병치료모티프는 제세모티프의 하나로 출현하며 성선 이후 재래모티프에서도 그 하나로 출현한다. 차원을 달리하여 거듭 출현하는 것은 질병과 그 치료

72) “宋景公問其道，不告，即殺之。數十年，踞宋城門，鼓琴數十日乃去。”，<寇先>，같은 책，129/129쪽.

가 세속에서 그만큼 문제시되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새삼스럽지만 질병은 세속의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우환일 뿐만 아니라 선도가 추구하는 불로장수를 직접적으로 좌절시키기 때문이다.

i) 부국선생은 ...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뒤 역병이 크게 돌았는데, 집집마다 찾아가 약을 주어 살아난 사람이 만 명을 헤아렸지만 일 진도 받지 않았다. ... ii) “나는 봉래산으로 돌아가 당신들을 위해 신비한 물을 내려 주겠소”라고 하였다. 어느 날 절벽 끝에서 하얀 색깔의 물이 나타나 바위틈으로 흘러내렸는데, 그것을 마신 사람은 대부분 병이 나았다. iii) 사람들은 10여 곳에 사당을 세웠다.⁷³⁾

i)과 ii)에서 치병 활동을 하는 부국선생은 수도 중인 도사로 보이지만, 그는 신선이며 이 활동은 재래를 전제로 한다. <부국선생>의 재래모티프는 ii)의 ‘나는 봉래산으로 돌아가 당신들을 위해 신비한 물을 내려 주겠소’에 내포되어 있다. ‘봉래산으로 돌아가’에서 보듯, 부국선생은 선계인 봉래산에서 거주하던 地仙이었다. 그러니까 i)도 지선으로서 벌인 활동이다. 봉래산으로 돌아간 그는 약속대로 병 든 사람들에게 선계의 ‘하얀 색깔의 물’을 준다. 이러한 재래모티프의 施藥 사례는 <東方朔>에서도 나타난다.

동방삭은 ... i) 선계 초년에 이르러 사랑의 관직을 버리고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여 관사에 두건을 놓아 둔 채 바람을 타고 표연히 사라졌다. ii) 나중에 회계에 나타나 호호에서 약을 팔았다.⁷⁴⁾

i)이 성선모티프의 사례이기에, ii)는 재래모티프의 사례이다. 동방삭이 난세에 나타나 선약을 파는 활동은 시약이나 마찬가지이다.

73) “負局先生者 ... 如此數十年，後大疫病，家至戶到與藥，活者萬計，不取一錢。... “吾還蓬來山，爲汝曹下神水。”崖頭一旦有水白色，流從石間來下，服之多愈疾。立祠十餘處。”，<負局先生>，같은 책，233/235쪽.

74) “東方朔者 ... 至宣帝初，棄郎以避亂世，置幘官舍，風飄之而去，後見於會稽，賣藥五湖。”，<東方朔>，같은 책，178/180쪽.

2.2.5.3 家族愛모티프

신선이 세속에 재래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족애이다. 수도자는 신선이 되어 세속을 떠나지만 세속의 가족을 잊지 않고 찾아온다.

i)자영이 그 잉어의 등 뒤에 올라타자 솟구쳐 올라 떠나갔다. ii)그 후로 해마다 옛집으로 돌아와 식사하고 처자를 만나고 나면 잉어가 다시 그를 맞이하러 오곤 했다. 이렇게 70년을 계속했다.⁷⁵⁾

i)이 성선모티프의 사례이기에, 따라서 ii)는 재래모티프의 사례이다. 신선 자영은 해마다 세속의 집으로 돌아와 처자와 상봉해 회포를 푸는데, 다시 떠나가며, 이 왕래는 70년에 한정된다. <木羽>의 다음 대목도 가족애모티프의 사례이다.

i)20여 년 뒤 학이 날마다 두 척이나 되는 물고기를 물고 와서 ii)모친 집의 문 위에 놓아두곤 했다. ... iii)30년이 지난 뒤에야 오지 않았다.⁷⁶⁾

i)이 재래모티프의 사례이며, ii)는 그 이유이다. 학은 목우의 화신이면서, 靈物이다. 목우는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서 세속에 돌아온다. 효도는 신선도 끝내 저버릴 수 없다는 메시지가 주목된다. iii)에서 보듯, 역시 그 기간은 한정된다. <陵陽子明>에서 능양자명도 일가이자 친우로 간주할 수 있는 자안을 잊지 못한다.

능양자명은 질향 사람이다. 旋溪에서 고기 낚기를 좋아했는데 ... i)3년 뒤 용이 와서 그를 맞이해 가 100여 년 동안 능양산 위에 머물렀다. ... ii)자명은 산 아래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산 중턱으로 올라오게 한 뒤 이르기를, “계곡에 사는 자

75) “子英上其魚背，騰昇而去。歲歲來歸故舍，食飲，見妻子，魚復來迎之，如此七十年。”，<子英>，같은 책，212/214쪽.

76) “後二十餘年，鶴雀旦銜二尺魚，著母戶上。... 三十年乃沒去。”，<木羽>，같은 책，251/252쪽.

안이 틀림없이 와서 자명의 釣車가 있는지 그 여부를 물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iii)그 후 20여 년 뒤 자안이 죽자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거두어 석산 아래에 장사 지냈다. iv)누런 학이 날아와 그의 무덤 옆 나무 위에 등지를 틀고 자안을 부르면서 울었다고 한다.⁷⁷⁾

i)이 성선모티프의 사례이기에, ii)와 iv)는 재래모티프의 사례이며, iii)은 ii)의 삽화이다. 능양산의 지선이 된 자명은 자안에게 관심을 가진다. 작중 관련 정황이 분명하지 않다. 자신의 조차를 자안이 찾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안이 그 조차를 찾는 이유가 자명처럼 신선이 되기 위한 모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에서 보듯 자안은 조차를 찾지도 못 하고 수련에도 실패한다. 그런 자안을 슬퍼하며 우는 누런 학은 자명의 화신일 것이다. 신선도 우어를 저버리지 못 한다.

2.2.5.4 謫仙모티프

<瑕丘仲>의 하구중도 재래한 신선인데 그 사행이 특이하다. 그는 보통 속인처럼 환난을 겪는다. 바로 선화에서 최초로 나타난 謫仙의 사례이며, 서사 전체에 확장되어 있다.

하구중은 ... i)영에서 백여 년 동안 약을 팔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장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였다. ii)지진이 일어나 집이 무너졌는데, 하구중의 집과 마을의 수십 호는 가옥이 강가에 있어서 모두 파괴되었다. 하구중이 죽자 마을의 어떤 사람이 하구중의 시체를 강 속에 유기하고 그의 약을 가져다 팔았다. iii)하구중이 갓옷을 걸치고 그의 집을 찾아가 약을 돌려달라고 하자, 하구중의 시체를 유기한 사람은 두려워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였다. 하구중이 말하길, “당신이 나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릴까 걱정이니 나는 떠나겠소”라고 하였다. 나중에 부여의 호왕의 驛使가 되어 영에 왔다. iv)북방 사람들은 그를 일러 귀양 온 신선이라고 하였다.⁷⁸⁾

77) “陵陽子明者，銓鄉人也。好釣魚於旋溪。… 三年，龍來迎去，止陵陽山上百餘年。… 大呼下人，令上山半，告言：“谿中子安當來，問子明釣車在否。”後二十餘年，子安死，人取葬石山下。有黃鶴來，棲其塚邊樹上，嗚呼子安云”， <陵陽子明>， 같은 책， 245/246쪽.

ii)에서 죽은 하구중이 iii)에서 다시 살아나기에 i)을 참작하여 하구중은 죽었다가 살아난 도사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iii)에서 가해자에게 정체를 감추려 하는데 굳이 감추어야 할 필요가 없고 정체를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 어색한 여운이 있었는데, iv)에서 그 이유가 밝혀지면서 의문이 해결된다. '귀양 온 신선', 즉 하구중은 적선이었던 것이다. 《열선전》의 적선 사례는 <하구중> 한 편이지만, 《신선전》의 <壺公> 등 후대에 맞게 출현하는 적선모티프의 원형이다. 그리고 하구중이 세속에서 치르는 고난이 주목된다. 그는 ii)에서 보듯 지진으로 죽고 시신이 강물에 유기되는 역경을 겪는다. 또 驛使의 사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자체는 보통 사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구중은 어디까지나 신선이었기에 歷劫의 양상이라고 하겠다.⁷⁹⁾

2.2.5.5 人神相愛모티프

人神相愛모티프의 고찰에서 먼저 거론하여야 할 것은 '神'의 개념이다. 神을 관행대로 도사와 신선 양자를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神을 그 자체로만 보며 '神仙'으로만 국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열선전》에서 인신의 상애가 인정될 수 있도록 그 정황이 제대로 부각되는 사례는 세속에 재래한 신선과 속인의 사례이기도 하다. 작품 자체의 이러한 사정에도 따라 결국 인신상애모티프는 재래모티프의 하나가 된다.⁸⁰⁾

78) “瑕丘仲者…賣藥於甯百餘年，人以爲壽矣。地動舍坏。仲及里中數十家，屋臨水，皆敗。仲死，民人取仲尸，棄水中，收其藥賣之。仲皮裘而從詣之取藥。棄仲者懼，叩頭求哀。仲曰：“恨汝使人知我耳，吾去矣。”後爲夫餘胡王驛使，復來至甯。北方謂之謫仙人焉。” <瑕丘仲>, 같은 책, 144/145쪽.

79) 이상에서 검토한 대로 <瑕丘仲>은 뒷날 신선 작품에 출현하는 下凡歷劫모티프 사례의 원형이다. 오광정은 下凡歷劫모티프를 언급하면서 <하구중>을 다루지 않았다.

80) 본고와 달리 김장환은 중국학계의 관행에 따라 神을 도사·신선으로 보면서 두 존재와 속인과의 애정 사례를 인신상애모티프로 다루며, <江妃二女>를 비롯하여, <蕭史>, <赤松子>, <攢子>, <圓客>을 주목하였다. (<《열선전》에 대하여>, 같은 책, 33쪽) 이러한 포괄 관점을 준용하여도 무난하지만 본고는 人神相愛의 '神'을 '神仙'으로만 국한하기에 《열선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은 <江妃二女>와 <圓客>, 2편이다. <蕭史>, <赤松子>, <攢子>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밝히면 다음과 같다. <蕭史>에서 농옥이 소사를 좋아하여 결혼하는 국면이 있다. “그녀가 그를 좋아하자 목공은 마침내 딸

<江妃二女>에서 신선인 강비 이녀는 세속에 재래하여 강가에서 거닐다가 세속의 남자가 연정을 표시하며 접근하자 선도의 지향과 다르게 주저 없이 수응한다. 신선은 세속 인간이 존중하고 경외하는 대상이며 탈속의 존재이기에 세속 인간과 연정을 매개로 교류하는 사례는 신선의 재래모티프에서도 이채로운 사례라고 하겠다.

강비라는 두 여인은 어느 곳 사람인지 모른다. i)한수 기슭에 놀러 나왔다가 정교보를 만났다. ii)교보는 그녀들이 마음에 들었지만 신녀인 줄은 몰랐다. ... 교보가 ... 내려가서 그녀들에게 “두 아가씨들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두 여인은 “당신께서 수고스럽지 소녀들이 무슨 수고랄 게 있겠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교보가 말하길, “글은 유자, 나는 그것을 네모난 바구니에 담지요. 한수에 띄워 흘러 내려가게 하지요. 나는 그 옆을 따라가며 지초 캐서 먹지요. 제가 볼सन한 줄은 압니다만 원컨대 당신의 패옥을 청합니다.”라고 하자, 두 여인이 “글은 유자, 나는 그것을 둥근 대바구니에 담지요. 한수에 띄워 흘러 내려가게 하지요. 나는 그 옆을 따라가며 지초 캐서 먹지요”라고 하고는 마침내 손수 패옥을 풀어 교보에게 주었다. 교보는 기뻐하면서 그것을 받아 가슴 한 가운데에 품었다. 수십 걸음을 급히 간 뒤에 패옥을 살펴보았더니 가슴이 빈 채 패옥은 없었으며, 두 여인을 돌아보았더니 금세 보이지 않았다.⁸¹⁾

을 시집보냈다.(好之, 公遂以女妻焉.)”(같은 책, 151/153쪽) 하지만 결혼할 때 소사는 통소 연주로 선도를 수련하는 중이었고, 결혼 이후에도 같은 사정에서 소사가 농옥에게 통소 연주를 가르치는데 사제관계가 부각되며, 두 사람이 그 성취로 하여 성선에 성공하면서 이야기가 종결되기에 본고에서 설정한 세속에 재래한 신선의 인신상애모티프의 사례에 맞지 않아 다루지 않았다. <赤松子>에서는 “염제의 막내딸이 그를 좇아 역시 신선이 되었다.(炎帝少女追之, 亦得仙俱去.)”(같은 책, 51/53쪽)고 하였는데, 염제의 딸이 적송자에게 접근하던 시기에 적송자는 도사라고 할 수 있으며, 염제의 딸도 연정으로 접근하였다기보다는 선도를 이루기 위해 적송자를 스승으로 모셨다고 하겠기에 역시 본고에서 설정한 기준 때문에 인신상애모티프의 사례로 다루지 않았다. <犢子>에서는 “양도의 딸이 그를 좋아하여 마침내 독자를 머무르게 하여 받들어 모셨다.(都女悅之, 遂留相奉侍.)”(같은 책, 185/186쪽)고 하였는데, 독자와 양도의 딸은 연정을 매개로 한 교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수련 과정이 이어지면서 작품이 종결되기에 역시 같은 이유에서 다루지 않았다.

81) “江妃二女者, 不知何所人也. 出遊於江漢之湄, 逢鄭交甫. 見而悅之, 不知其神人也. …交甫 … 遂下與之言曰: “二女勞矣.” 二女曰: “客子有勞, 妾何勞之有?” 交甫曰: “橘是柚也, 我盛之以筥. 令附漢水, 將流而下. 我遵其傍, 採其芝而茹之. 以知吾爲不遜也, 願請子之佩.”, 二女曰: “橘是柚也, 我盛之以筥. 令附漢水, 將流而下. 我遵其傍, 採其芝而茹之.” 遂手解佩與交甫. 交甫悅, 受而懷之中當心. 趨去數十步, 視佩, 空懷無佩. 顧二女, 忽然不見.”, <江妃二女>, 같은 책, 117/119쪽.

i)이 재래모티프의 사례이며, ii)는 그 삽화이다. 강비 이녀의 정체를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ii)의 첫 문장에서 밝힌다. 그녀들이 신선이라는 사실을 정교보만 모르고 신선인 강비 이녀와 독자는 알기에 아니라니 상황이 조성되어 흥미를 끌며, 그 추이를 더욱 궁금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은 《詩經》의 대응 형식을 모방한 시구를 읊어 애정 표현을 연출하고 또 그 승낙을 비유하는 패옥까지 수수한다. 하지만 곧 반전이 일어난다. 정교보가 가슴에 품은 패옥이 홀연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앞 발단의 아이러니 상황에 이미 함축되어 있었다고 하겠으며, 또 그녀들이 애초부터 의도한 바라고 하겠다. 신선은 속인의 애욕을 인정하고 수용을 하지만, 그런 속인을 초탈의 경지에서 희롱도 하며 애욕이란 결국 집착하지 말아야 할 환몽과 같다는 것을 교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차 주목할 할 것은 신선과 속인 사이에도 연정의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人神相愛모티프의 사례는 <園客>에서도 그 편린이 보인다.⁸²⁾

이상으로 《열선전》의 주인공들이 세속에서 벌리는 활동에서 출현하는 모티프들을 관련 사례를 예거하며 각각 점검해보았다. 크게, 俗事超然모티프, 傳授모티프, 濟世모티프, 降妖모티프, 再來모티프, 5가지였다. 俗事超然모티프는 그 하위 모티프로, 結婚回避, 財慾克服모티프가 있었고, 傳授모티프는 그 하위 모티프로 經書, 服藥, 道術모티프가 있었으며, 濟世모티프는 그 하위모티프로, 亂世安定, 災害對處, 疾病治療, 利用厚生모티프가 있었고, 再來모티프는 그 하위모티프로 仙道傳播, 疾病治療, 家族愛, 謫仙, 人神相愛모티프가 있었다.

속사초연모티프들은 선도 종사자들이 세속의 질서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82) <園客>의 관련 국문은 다음과 같다. “원객은 … 누에를 칠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아리따운 여자가 밤에 찾아와 스스로를 원객의 아내라고 하면서 누에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였다. (園客…至蠶時, 有好女夜至, 自稱客妻, 道蠶狀.)”(같은 책, 192/193쪽) 이 작품에서 이처럼 수련 과정의 원객에게 신선(선녀)이 나타나 원객의 양잠에 조력한다. 연정이 구체화된 형태가 없지만 신선과 원객이 함께 누에를 치고 또 고치를 켜는 과정에서 일정한愛情 교류를 한다고 추정할 수 있어 人神相愛모티프와 연관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신선의 접근 의도는 애정이라기보다는 원객에게 도술인 양잠술을 가르쳐 원객으로 하여금 성선하게 하려는 것이었기에 <江妃二女>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의지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선도의 기본 지향과 일치한다. 결혼은 세속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 차원의 도모이며 재물은 권력과 명예와 더불어 세속 사회를 지배하는 욕망의 표상이기에 그 극복은 선도 종사자들의 정체성의 유지와도 관계된다.

전수모티프는 선도 종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자각하는 가운데 제자를 육성하며 선도를 전파하는 활동이다. 제세와 향요모티프는 활동의 규모와 의의가 크지만, 선도 본연의 목표인 초월에 미치지 못하는 못 한다. 인간의 진정한 구원은 세속 삶의 질서와 한계를 탈피하여야 가능하며, 전수모티프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발생하였다고 하겠고, 선도 수련과 성선의 방안에 관련되어 있다. 또 제세나 향요와는 달리 수혜자의 능동성이 이 모티프의 출현에서 일정한 내적 기초를 이룬다. 즉 주인공이 스스로 동기를 발동시켜 일방적으로 시혜하는 양상이 아니다. 선도에의 접근과 성취는 수혜자의 진정한 회귀와 자발성이 요구된다는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

제세모티프와 향요모티프는 선도 종사자들의 사회 활동에서 중핵에 해당한다. 선도 수련의 결과로 성취한 도술의 발휘에 관련되어 있었고, 선도 종사자가 자기 개인의 성취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사람들의 여러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利他の 민중지향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활동은 자기구원의 연장이며 세속 삶의 한계에 도전하는 운동의 연속이기도 하다. 주인공의 세속 활동 영역에서 출현한 모티프 중에서도 특히 이 두 모티프가 《열선전》 이후에 仙話가 成仙 위주의 개인 傳記性 이야기에서 소설로 발전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재래모티프는 선도 종사자가 선도 입문 이래 여러 수련과 활동 끝에 최종 성취인 성선에 성공하고 선계에서 不死를 향유하면서도 세속에 와 다시 활동하는 국면을 여는 단초였다. 이 모티프는 우선 보기에 성선의 취지와 모순된다. 하지만 신선은 인간이 아니면서도 인간이라는 그 본질을 상기하면, 재래는 선도의 일관성에서 일탈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발생한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선은 승화된 인간으로서, 즉 그

본질이 어디까지나 인간이기에 필요와 사정에 따라 세속에 재래하여 인간들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하위 모티프로 선도전파모티프가 출현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선도 종사자뿐만 아니라 신선에게도 선도전파가 진정한 소망이며 나아가 선계가 별천지이기는 하지만 세속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모티프가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家族愛모티프, 謫仙모티프, 人神相愛모티프, 질병치료모티프가 같은 하위 모티프로 출현하여 주목된다. 이 중 질병치료모티프는 세세모티프의 하나로 나타났었다. 이러한 중복은, 질병이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질고로 사망을 초래하여 불로장수에 장애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신선들이 속인들의 질병과 그 고통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작가들의 인도주의 추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하겠다. 가족애모티프 역시 신선의 본질에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고 하겠으며, 세속 사람들의 진솔한 도리가 신선에게도 통용된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다시 한 번 신선의 본질이 인간이란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목할 것은 이 모티프의 활동이 일정한 한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신선이 세속에 귀양 오는 적선모티프 역시 신선이 어디까지나 인간이란 사실에서 유래하였다고 하겠다. 선계에서 신선도 혹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 견책으로 세속으로 귀양 온다. 재래의 방식은 타율이며, 세속에서 여러 겁난을 거치는데, 그 사행에서 신선의 본질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인신상애모티프는 신선과 인간의 애정 교류라서 의외이지만 역시 위 모티프들과 같은 사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하겠다. 하지만 신선과 인간이 애정으로도 교류가 가능하다는 발상은 다른 모티프들과 성격이 판이하다. 가족애모티프가 있지만 이는 선계에서도 존중해야 할 도리이나, 애정은 선도에서 극복하여야 할 금기에 가깝다. 그러나 신선의 애정은 세속의 애정과 다르다. 신선은 세속의 애정을 빌려, 세속 애정의 한계를 시사한다. 긍정과 부정을 통해 애욕의 한계를 각성시켜 그 승화를 도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인간만이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꾼은 이야기에 매력을 느껴 그 전승을 자임 하기도 하지만, 조악한 현실에서 꿈과 이상을 기원하며 있어야 할 현실을 이야기한다. 소설은 이야기꾼의 욕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동기에서 발생하였을 것이며, 선화의 발생 역시 그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로장생과 공간초월을 핵심 지향으로 하는 仙話는 우선 보기에 시공에 구애받는 인간의 욕망이 조성해낸 이야기로 보이지만, 인간 존재의 한계와 세속의 부조리를 통찰하고, 이에 좌절하지 않고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열선전》에 수록된 작품들은 거의 成仙을 주제로 하며 성선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열선전》의 반동인물과 주인공의 세속 활동 영역의 모티프들도 그 서사구조에 기여한다. 하지만 선도 종사자들의 양생, 도술능력, 성선 국면이 조명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한 형편이었다. 또 두 영역의 모티프가 제시된 작품들은, 수련 과정이나 성선 관련 모종 사연만 제시된 작품들에 섞여 있거나, 또 한 영역의 모티프만 제시되면서 관련 정황도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어, 그 면모와 의의가 잘 조명되지 못한 듯하다.

반동인물은 작중에서 갈등을 조성하여 이야기를 선명하게 이끌고, 주인공의 세속 활동은 개인 차원의 수련과정에 국한되기 쉬운 선도 종사자의 삶을 사회로 그 외연을 확장하기에, 소설론의 관점에서 그 모티프들이 무엇인지 한번은 고찰될 필요가 있었다.

이상으로 점검된 《열선전》의 반동인물 영역의 5개 모티프와 주인공의 세속 활동 영역의 5개 모티프는 戰國시대부터 仙道 故事의 작가들이 계발하였고, 西漢의 유행이 정리하거나 추가하여 집성한 것들이라고 하겠다. 구체적인 검

증이 후속되어야 하겠지만, 두 영역에서 검출된 모티프들은 쥘 葛洪의 《神仙傳》을 비롯하여 清末 宣鼎의 《夜雨秋燈錄》에 이르기까지 관련 모티프들의 지속과 변화를 검토하는 작업에서 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티프들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사되었듯, 《열선전》의 해당 작품들은 반동인물의 등장과 갈등, 그리고 주인공이 벌이는 사회 활동이 간략하게나마 일정한 의미를 갖고 연출되어 있어 소설로서 기본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 유향 지음/김장환 옮김, 《열선전》, 예문서원, 1996.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2005.
 정선경, <《열선전》에 대한 서사학적 연구 및 역주>,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6.
 吳光正, 《中國古代小說的原型与母題》, 북경·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2.
 매조리 볼튼, 김영민 역, 《소설의 분석》, 동천사, 1984.
 클리언스 브룩스, 로버트 펜 워렌 지음, 안동립 옮김, 《소설의 분석》, 현암사, 1985.
 M. H. Abrams 저, 권택영 최동호 편역, 《A Glossary of Literary Term》, 새문사, 1993.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84.
 줄고, <《신선전》의 서사모티프 고찰 - 오광정의 연구에 대한 검토>, 《중국문화연구》 21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12. 12.

< 中文提要 >

《列仙傳》中關於反面人物和主角的世俗活動的母題一直沒有引人注意。反面人物是作品中營造糾葛的人物形象，主角的世俗活動是把容易限于個人的修煉活動向社會擴大了其外延。我們將要從小說的觀點上探討一次這個主題。

并且，在後代作家注意和運用這兩個大母題領域的前提之下，對這兩個領域的內容進行梳理，可以得出一些母題。在反面人物的領域里有不義母題、亂世母題、不信母題、無禮母題和養生疏忽母題。這些母題鮮明地表現了仙道追求者的愿望是什么，他們的弱点和難題是什么。不義母題和亂世母題是由俗人的不合理的欲望引起的，與仙道追求者憧憬的價值觀形成鮮明的對比，在作品中引起糾葛。不信母題、無禮母題和養生疏忽母題反映出在傳播仙道上的一些障礙。

主角的世俗活動中有五個大母題，俗事超然母題、傳授母題、濟世母題、降妖母題和再來母題。傳授母題中包括三個小母題：經書傳授母題、服藥傳授母題和道術傳授母題。濟世母題中有四個小母題：蕩平亂世母題、對付災害母題、治療疾病和社會福利母題。再來母題中有五個小母題：傳播仙道母題、治療疾病母題、親情、謫仙和人神相愛母題。

俗事超然母題起因于仙道追求者想要從世俗秩序中解放的意志，與仙道所追求的基本方向一致。濟世母題和降妖母題指的是仙道追求者不只是為了個人成仙而埋頭努力，而且也關心世俗人的艱難和疾苦。傳授母題起因于人間的真正營救不是濟世和降妖，而是擺脫世俗生活的限制，而引發的問題意識。再來母題好像與成仙有矛盾似的，但神仙畢竟是人，却由于要强化仙道的意圖而發生的母題。因此神仙有必要時再來人間，參與人的活動。謫仙母題也來源于神仙事實上是人的觀念。仙界里神仙也會出錯兒，他被譴責降凡歷劫，他在歷程中体现出神仙的本質來。人神相愛母題是神仙與人之間的愛情交流，神仙的愛情與世俗的愛情不同。通過對愛情肯定和否定讓仙道追求者意識到愛和欲之間的矛盾，走成仙之路。

以上探討的《列仙傳》中關於反面人物和主角的世俗活動的母題，到了西漢，劉向把戰國時代以來的仙道故事收集匯編。需要具體探討，對於研究從晉葛洪的《神仙傳》到清末宣鼎的《夜雨秋燈錄》有關母題的持續和變化，所抽出的兩個領域的母題可成爲一個參考基準。《列仙傳》的該作品具有小說的基本結構。

關鍵詞：不義母題、亂世母題、不信母題、無禮母題、養生疏忽母題、俗事超然母題、傳授母題、濟世母題、降妖母題、再來母題

www.kci.go.kr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12. 31.	2014. 2. 4.	2014. 2. 18.	2014. 2. 24.	2014. 2. 28.